



틀을 넘어 한발 더 앞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 갇혀있다 보면 그 틀을 잣대 삼아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틀에 맞지 않는 일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되곤 하지요.

하지만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대로 만족하고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어진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제자리걸음만 반복될 뿐이에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더라도,

한 걸음씩 천천히 기존의 틀 밖으로 발을 내디뎌 보세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SēAH

나로부터의 변화, 자기 혁신

스스로를 가두는 타성을 탈피하고,
자기 점검과 솔선수범으로 혁신을 만드는 세아





나로부터의 변화, 자기 혁신

좋은 신발은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고들 합니다. 비단 값비싼 명품 구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매끈하고 단정하게 구두를 손질해 놓은 사람만이 언제라도, 어디라도 원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요. 구두 뒤축을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굽이 닳아버려서 구두 자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기업도, 기업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점마다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잘 가다듬지 않으면 오래된 구두처럼 낡아서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세아인들의 구두는 어떤가요? 눈부신 새봄 속으로 힘차게, 새롭게 나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발행일 2016년 4월 22일 **발행인** 서영범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02-6970-0093 **기획·디자인** (주)더윌호 02-733-0790 **표지** 이기세 작가
인쇄 드림인쇄(주) 02-464-6161 **사진** Studio A one 02-553-4430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SeAH Insight	04	테마 메시지	새로운 나를 시작하는 계절, 봄입니다
	06	테마 인터뷰	심리학 박사 이민규 교수
	10	테마 칼럼	세계 100대 혁신 기업 탐구
SeAH Inside	14	세아는 지금	그룹 경영진 계열사 사업장 순방 2016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2016 세아 ESAB 표준 작업 카이젠
	22	세아 히스토리	56년 세아의 성장을 이끈 혁신
	24	글로벌 리포트	Inox Tech S.p.A Sales & Purchase Team
	28	팀 플레이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생산팀 & 설비팀
	32	동고동락	재무파트 직원들의 만남
	36	함께 가는 길	홀트와 함께한 나눔세아 캠페인
SeAH Interaction	40	도란도란 우리가족	원목 가구 만들기 체험
	44	행복 레시피	노력과 관심으로 맛을 낸 봉골레 스파게티
	46	세아다움	봄날 비즈니스 룩의 정석
	48	SeAH News	
	49	People News	
	50	Post Box	



새로운 나를 시작하는 계절, 봄입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봄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기지개를 켜고
시든 것처럼 보이던 고목에서 파릇한 새순이 돌아옵니다.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 어쩌면 봄은 혁신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봄은 어떤가요? 여태 겨울잠을 자고 있지는 않나요?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데,
우리 안의 기운은 묵은 것들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지는 않나요?
언 땅을 뚫고 나와야만 새싹이 돌아날 수 있듯 자기 혁신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향해 분주히 움직일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무한한 능력과
'나는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동력이며, 희망의 꽃씨입니다.
자기 혁신은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봄이 남쪽의 초록으로부터 서서히 번져오는 것처럼 조금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스스로를 변화시켜 보세요.
나부터 변화하고 달라질 때 세상도 달리 보인답니다.

이제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세요.
그리고 어제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새로 피어난 고운 꽃처럼 우리의 새날도 활짝 피어날 거예요.



Profile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를 거쳐 아주대학교 부설 아주심리상담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01년 제1회 아주대 강의우수교수(Best Teacher) 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 교보문고 창사 30주년 기념 <대한민국이 읽은 대작가 25인>에 선정된 바 있다. 2003년에 출간한 <1%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자기계발서 열풍에 불을 붙였고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실행이 답이다> 등의 저서를 내놓으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1%만 바꾸면 된다'는 삶의 철학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하루 1% 변화가 혁신의 시작

심리학 박사 이민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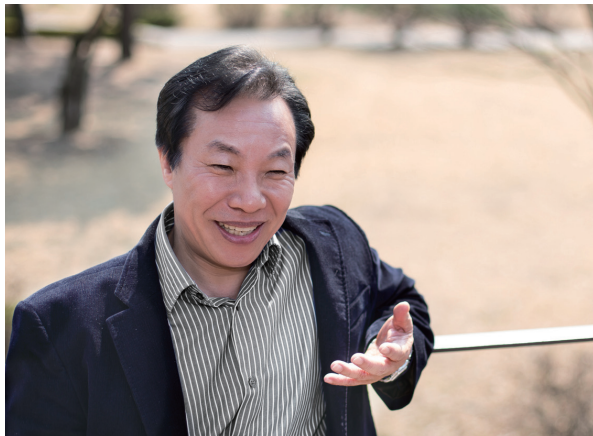
개인이든 조직이든 ‘바뀌야 한다’ ‘변해야 산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달라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인간 본능과 지나치게 거창한 계획도 혁신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어제와 다른 나를 위해 오늘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민규 교수는 하루 1%, 작은 시작만으로도 혁신의 일상과 달라진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교수님께서 ‘1% 행동심리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리학자로서 실천과 행동에 무게를 두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간관계가 되었건, 일이 되었건 모든 성과는 반드시 역량과 실행이라는 두 가지의 함수 관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아무리 가득해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전달하지 않는다면 비싼 선물을 사서 포장까지 해놓고 상대방에게 건네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과 지식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사실은 실천했을 때만 옳은 말입니다.

왜, 언제, 누구에게 자기 혁신이 필요할까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자기 혁신이 필요합니다.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얻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조만간 그 얻던 것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오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비효율적인 방법을 더 열심히 하거나 더 강도를 높여서 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원한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하고,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남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성과를 바꾸고 싶다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에서 구성원의 자기 혁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자기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5만 개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지만 그 중 20년 이상 살아남는 기업은 4% 정도에 불과합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도 100년 이상 살아남는 기업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태된 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거나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한 바를 잘 이행하면서 변화와 혁신에 성공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은 어떤 이에게는 쉽습니다. 연애도 돈 버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렛대란 무엇일까요? 작은 힘을 가해서 큰일을 하게 해주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말합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땀을 빼면서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르게 규정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등 지렛대들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자기 혁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변화와 혁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선택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더 큰 보상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거래의 연속입니다. 변화와 자기 혁신에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은 거래 패턴이 다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유보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눈앞의 득실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변화에 실패하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변화에 성공합니다.

저서에서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라고’고 조언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안에 수용소를 갖고 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이나 학생들을 만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작게 규정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은 자기 자신이 친 덫입니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더 높은 곳에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작게 해야 합니다. 크게 시작하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을 반복하다 보면 무력감에 빠져 해낼 수 있는 일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크게 하되 시작은 작게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1%만 바꾼다고 하여 삶이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루의 1%, 딱 15분만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며 이루고 싶은 꿈과 인생 목표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점심 때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 일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1%만 잡아주면 나머지 99%는 저절로 달라집니다. 1년도 되기 전에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렛대는 어떤 것일까요?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렛대로 저는 역산 스케줄링을 꼽고 싶습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을 역산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보냅니다.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일이 중요하게 느껴져서,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멈춰 생각할 시간을 갖고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역방향으로 바라보면 유혹에 휘돌리지 않게 됩니다. 선택의 대상이 분명해지고 당연히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되지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매일 각오를 새롭게 해도 참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기 혁신의 의지를 다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자기통제의 달인들은 상황의 힘을 역이용해 유혹을 원천 봉쇄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저자인 빅토르 위고는 한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느라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그는 어느 날 글방으로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몽땅 하인에게 벗어주며 ‘해가 질 때까지 절대 옷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싶은 유혹을 차단한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결심을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의 힘을 역이용해 자신을 가두는 방법을 심리학에서는 ‘가두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퇴로를 차단하고 스스로를 가둬서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 됩니다.

개인의 혁신과 조직의 혁신은 어떻게 발을 맞춰야 할까요?

조직의 혁신이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조직원 개개인의 목표와 접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일을 분담시키지 마라. 대신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동경케 하라’.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스스로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개인적인 욕망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DNA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욕망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조직의 목표는 결코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성장 위기에서 생존의 활로를 찾아 고민하고 있는 세아인들을 위해 자기 혁신에 대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Inamori Kazuo)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 일 하나를 더 낫게 하기 위해, 더 잘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하고 있는 일 하나를 선택해서 어제와 1%라도 다르게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남과 다르게 실천해보십시오. 10년도 되기 전에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 자신과 승승장구하고 있는 세아그룹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원한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하고
남다른 삶을 원한다면
남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세계 100대 혁신 기업 탐구

1993년 삼성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고 말하며 혁신하지 않으면 제아무리 1등 기업도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저성장 시대, 냉혹한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가 발표한 ‘2015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독려,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는가?

세계 100대 혁신 기업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구성원을 혁신의 아이디어 제안과 실현의 주체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글로벌 혁신 기업들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직접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5년 연속으로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된 3M은 연구원들이 업무 시간의 15%를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신상품·신기술을 연구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5% 시간의 활용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안한 구성원이 직접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 달러 이내에서 일정 금액의 펀드를 제공해 주는 ‘제네시스 그랜트(Genesis Grant)’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구성원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이전에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시장에서 경쟁우위가 있는지, 데이터 분석은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받는다. 심사를 통과한 아이디어는 그랜트를 부여 받으며, 아이디어를 발의한 구성원은 팀 구성부터 프로젝트 계획 수립, 개발, 마케팅 테스트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 동안 제네시스 그랜트 제도를 통해 스카치 팝업 테이프, 3M 비퀴티(Vikuiti), 다층 광학 필름(Multilayer Optical Film) 기술 등이 개발되었으며, 매년 약 10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 역시 2012년부터 꾸준히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20% Time’ 제도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R&D,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는가?



“오늘날의 경쟁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을 위해서는 위대한 아이디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혁신의 발현은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고 상업적 통찰력을 발휘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자 함에서 비롯됩니다.” 톰슨 로이터의 IP & Science 사업부 수석 부사장 데이브 브라운(Dave Brown)은 이렇게 말하며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 적용하는 강력한 공식으로 ‘특허’를 내세웠다. 실제로 톰슨 로이터는 특허 출원량, 출원-허가 성공률 등을 척도로 세계 각국의 기업을 분석하고 100대 혁신 기업을 선정한다. 2015년 발표된 100대 혁신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 기반 산업이 리스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제품을 생산하고 지적재산권을 통해 이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5 세계 100대 혁신 기업들은 각각 수익 부문 6.01%, 시가총액 중 연구개발 부문 투자 1.89%로 MSCI지수(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를 앞질렀다. 이는 결과적으로 R&D 및 혁신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수익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2011년 록스타 컨소시엄(Rockstar Consortium)은 노텔(Nortel)에게서 6,000건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45억 달러에 사들였다. 같은 해, 구글이 모토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한 사례도 특허가 기존 수익원을 뛰어넘는 수익 창출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영향력,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인가?



톰슨 로이터가 세계 100대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 또 다른 기준은 ‘세계적 영향력’이다. 이는 다른 기업이나 조직이 혁신을 인용하는 빈도를 측정하여 정한다. 톰슨 로이터는 독자적인 특허인용지수인 DWPI(Derwent World Patents Index)에 기반하여 최근 5년간의 특허 인용 횟수를 집계한다. 한 기업이 발명한 기술이나 혁신 프로세스 등이 다른 조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선정된 100대 기업 중 40개 기업은 5년 연속 수상자들이다. 그중 일본 기업은 15개, 미국 기업은 14개로 전체 리스트의 75%를 차지했다. 한국도 3개의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화웨이(Huawei)를 통해 2014년 최초로 리스트에 등재됐으나 2015년에는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중국의 부진은 대부분의 혁신이 내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실체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그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기록적인 숫자의 국내 특허 출원을 통해 자국의 지적재산 인프라의 지속적인 진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업화된 활동은 6%에 불과하다.

스타트업 DNA, 경계 없이 배우고 시도하는가?



톰슨 로이터는 2015년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선두 혁신 기업(Top San Francisco Bay Area Innovators)을 새롭게 리포트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톰슨 로이터는 ‘세계 100대 혁신 기업과 비교하고, 성장하는 기술 분야에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베이 지역은 실리콘밸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곳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약 7,000평방 마일 규모의 단지이다. 수많은 세계적 첨단 기술 기업, 창업 기업, 최고 수준의 대학이 자리잡은 본거지이자 파괴적 혁신이라는 사고 방식이 급증하고 있는 곳이다. 조직이 오래되고 규모가 클수록 혁신은 어렵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과 조정, 오랜 기간 누적된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신화처럼 굳어진 과거의 성공 방식, 층층이 쌓인 보고 체계 등이 혁신을 지연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반면 실리콘밸리에 입주한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은 작은 규모만 큼이나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100대 혁신 기업에 선정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에게서 혁신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E는 오랜 역사를 가진 대기업임에도 스타트업 기업에게서 생존 방식을 활발하게 찾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지난 2012년, GE는 스타트업 구루인 에릭 리스(Eric Ries)의 도움으로 패스트웍스(FastWorks)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린(Lean) 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한 패스트웍스는 완성도는 낮지만 어느 정도 기능이 구현된 제품을 빨리 만들어낸다.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제품 개발 방향을 수시로 전환함으로써, 제품 개발 속도를 촉진하고 고객의 요구에 근접해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GE는 가스 터빈 개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이 같은 혁신을 기반으로 GE는 세계 100대 혁신 기업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혁신’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물론 모든 시대에 혁신이 필요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혁신은 필수 과제이다. 100대 혁신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혁신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반드시 성공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게 마련이기 때문.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혁신을 등한시하고 현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시장과 고객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이를 앞서 혁신하는 기업만이 미래의 경쟁에서 승자로 살아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향한 분주한 발걸음

그룹 경영진 계열사 사업장 순방

이순형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진이 전국 각지의 사업장 순방에 나섰다. 초경쟁 시대 기업 생존의 해답을 현장에서 모색하기 위한 행보, 그 분주한 발걸음을 따라 <세아가족>이 포항 지역 사업장 두 곳을 방문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3월 21일, KTX 포항역에 도착한 그룹 경영진 일행은 곧바로 세아제강 포항공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번 사업장 방문에는 세아제강 이회령 사장을 포함해 이주성 전무, 세아홀딩스 서영범 대표가 동행했다. 방문단 일행은 포항공장에 도착하여 구내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현장의 고충을 묻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40년 가까이 사용해온 낡은 설비가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소경1공장을 둘러본 이순형 회장은 몰라보게 달라진 공장의 모습에 놀라움과 감탄을 표했다.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현장,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장 내 오염을 정화하고 도색을 실시하는 등 2012년 4월부터 명소활동을 이어왔다. 이순형 회장은 현장 임직원들에게 ‘명소활동이 단기 이벤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경영진 일행은 대경공장과 중경2공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공장 부지 내에 새로 조성중인 야적장을 둘러보는 등 현장 곳곳을 세심하게 살폈다.

끊임없는 개선 활동이 경쟁력 만든다

‘Stay Hungry’. 세아제강 포항공장 시찰을 마친 후, 이순형 회장은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를 인용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강관업계 선두주자의 위상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특히 R&D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그룹 경영진 일행은 걸음을 옮겨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을 찾았다. 방문단 일행은 자동 산세 및 피막 설비, 수소벨로 등 주요 시설을 돌아보며 개선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공장을 둘러본 후, 이순형 회장은 어려운 시황과 경쟁사의 공세 속에서도 선재업계 1위를 꾸준히 지켜온 세아특수강의 업적을 치하했다. 또한, 지속 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확대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주문했다.

일부의 혁신을 전 계열사의 혁신으로

이번 포항 지역 사업장 시찰에 앞서 그룹 경영진 일행은 지난 2월 24일 군산 지역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방문을 시작으로 3월 9일 창원 지역, 3월 14일에는 원주와 충주 지역의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해 4월 국내외

사업장 방문에 이어 올해도 전국 각지의 현장을 돌며 변함 없는 현장 경영의 의지를 밝힌 것. 이순형 회장은 ‘생산 설비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전 직원의 합심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 5일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그룹 경영진 사업장 순방 활동은 일부 사업장의 성공적인 혁신 활동을 전국 각지의 사업장에 전파,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룹 경영진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역 사업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혁신 의지를 다지고, 저성장 초경쟁 시대에 맞서 그룹 내부의 전열을 더욱 견고히 가다듬겠다는 계획이다.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는 봄밤 2016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고 이운형 회장의 오페라에 대한 열정을 이어받은 2016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가 개최됐다. 새봄의 설렘이 가득했던 지난 3월 17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은 총 80여 분의 시간을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우며 수많은 관객들을 오페라의 세계로 초대했다.



이운형문화재단의두번째정기음악회

3월 17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앞은 이운형문화재단 음악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객들로 붐볐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은 오랜 시간 한결같이 오페라를 사랑하고 후원해온 고 이운형 회장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시작돼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 '오페라 버킷'은 관객과 세상에 꼭 들려주고 싶은 오페라곡 모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벨칸토 오페라 작품들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벨칸토(Bel Canto)'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화려하고 섬세한 이탈리아 오페라 특유의 창법과 장르를 일컫는다. 이날 음악회는 꿈, 추억, 회상, 갈등 등 사랑의 다양한 감정을 '청교도', '루치아', '사랑의 묘약' 등 대표적인 벨칸토 오페라 작품들로 엮어 선보였다.

세계 정상급의 음악가들이 함께한 수준 높은 무대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빠짐없이 메워진 가운데, 아련한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흐느끼듯, 못내 참지 못하고 목놓아 울 듯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와 28인조의 조이심포니오케스트라는 애절한 멜로디로 '샤콘느(Chaconne)'를 협연하며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김재형을 비롯해 박현주, 정수연 등 내로라하는 성악가들이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특히 김재형은 런던 코벤트 가든, 파리 국립오페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등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세계적인 테너. 그는 이날 무대에서 특유의 강렬한 목소리로 베르디의 오페라 <두 명의 포스카리> 중 '유배의 땅으로부터(Dal piu remoto esilio)'를 열창하며 스타 테너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유럽에서 연기와 기량을 인정받은 소프라노 박현주도 베르디의 오페라 <돈 카를로> 중 ‘허무한 세상(Tu che le vanità)’과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의 대표곡인 ‘정결한 여신(Casta diva)’을 선보였다. 화려한 기교와 호소력 짙은 음색을 지닌 그녀의 노래는 기쁨과 슬픔을 오가는 사랑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하며 관객의 찬사를 자아냈다. 이 밖에도 이날 공연에서는 이소영 전 국립오페라단장이 연출을, 전 국립오페라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바 있는 김주현 예술감독이 지휘를 맡았다.

재단 후원 인재들의 멋진 노래

그런가 하면 바리톤 김주택과 최인식, 테너 김범진과 김승직 등 이운형문화재단이 후원해온 젊은 아티스트들도 뛰어난 기량과 무대 매너를 뽐내며 관객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이들은 ‘나의 갈망이여, 나의 망상이여(Mein sehnen, mein wöhnen)’, ‘남 몰래 흐르는 눈물(Una furtiva lagrima)’ 등을 부르며 벨칸토 오페라의 향연을 펼쳤다. 또 한 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첼리스트 양성원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Vocalise)’를 연주하며 가슴 뭉클하고 잔잔한 분위기로 좌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플루티스트 오신정도 ‘시링크스(Syrinx)’의 매혹적인 연주로 청중들의 마음에 진한 여운을 남겼다. 미디어 아트를 통한 무대 효과도 이날 공연의 특징 중 하나. 오래도록 담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열리고, 빼곡하게 적어두었던 옛 일기장이 등장하는 등 다채로운 무대 영상은 연기처럼 흐릿했던 옛 기억이 선명하게 다시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며 무대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희망의 의미를 더한 퍼포먼스

공연장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김재형, 박현주, 정수연 등 6명이 성악가들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도니제티의 <루치아> 중 ‘그 누가 나의 슬픔을 거두어 주리(Chi mi frena in tal momento)’를 함께 부르며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였다. 이어 김재형이 <루치아>의 대표 아리아이자 벨칸토 오페라의 정수로 꼽히는 ‘날개를 펴고 하늘로 간 그대여(Tu che a dio spiegasti)’를 노래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의 비통함을 여실히 담아낸 그의 격정적 무대는 공연을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곡이 끝날 무렵, 고이운형 회장의 외손자인 허은홍 군이 등장했다. 은홍 군은 무대 영상 속 태양을 가리키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끝나지 않은 사랑’과 그리움의 의미를 더했다. 이후,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가 다시 무대에 올라 앙코르 곡으로 쇼스타코비치의 ‘로망스(Romance from the Gadfly)’를 연주하며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오페라를 향한 사랑, 세아의 문화로 자리매김해

봄밤, 부드러운 바람이 마음에 번지듯 이번 음악회는 사랑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섬세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풀어내며 관객들의 감성을 물들였다. 한편,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공연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오페라 버킷>은 이운형문화재단과 세아의 연례 문화 행사로 자리잡았다. 한 사람의 오페라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오페라를 알리고 싶다는 아름다운 뜻이 어느덧 수준 높은 음악회로 자리매김한 것. 떠나간 이에 대한 추억이 그저 지나간 꿈이 아니라 여전히 선명한 사랑이듯, 오페라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아의 행보는 시간이 더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아름답고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 강하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2016 세아 ESAB 표준 작업 카이젠

해가 바뀌고 봄이 오면 회사마다 너나 없이 ‘혁신’에 대한 구호가 넘쳐난다. 당장이라도 초일류 기업으로 변신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실제로는 구호에만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세아 ESAB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 지난 1월 18일, 세아 ESAB은 생산 현장의 7대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5일간의 표준작업 카이젠 이벤트에 돌입했다.

카이젠 전문 컨설턴트 초빙

카이젠(Kaizen)은 우리말로 ‘개선(改善)’의 일본어식 발음으로, 작업 현장의 낭비를 없애고 바꾸고 줄이는 활동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요타의 TPS(Toyota Production System)가 대표적이며, 세아 ESAB도 약 2년 전부터 카이젠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과 사무직 각 1건씩 매달 2건의 카이젠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총 24번의 카이젠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카이젠 활동을 즐기게 이어가고 있는 세아 ESAB이지만 이번 카이젠은 어느 때보다 한층 비장하다. 일단, 세계적인 린(LEAN: 비용 및 자원 관점에서 군살

없는 경영 체제) 컨설팅 업체인 일본 신기쥬츠컨설팅(Shingijutsu Consulting)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초빙했다. 이번 전문 컨설턴트 초빙에는 ‘제대로 노하우를 전수받아 향후 자체 카이젠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세아 ESAB의 의지가 반영됐다.

문제를 찾아 현장에서 바로 해결

“고객이 제품을 요구하는 수요 속도에 비해 현장의 작업 진행이 너무 앞서거나 늦지 않은지, 동선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작업 프로세스는 효율적인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카이젠의 테마, ‘표준



작업’에 대해 김남우 팀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표준작업 수립을 통해 현장의 7대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이를 위해 유덕상 대표를 비롯해 팀장급 주요 실무진이 직접 현장에 나섰다.

5일간의 카이젠은 숨돌릴 틈 없이 바쁘게 진행됐다. 총 27명의 카이젠 참가자는 세아 ESAB의 주요 공정인 성형, 권취, 포장 분야로 나누어 조를 편성했다. 각 조는 먼저 현장에서 설비의 능력과 작업 시간 등을 관측하며 지나치게 긴 동선, 불필요한 동작, 정상 가동을 방해하는 설비 결함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현장 관측과 회의를 수없이 반복하며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를 찾아냈다. 또한 적정 수의 작업자 배치, 장비 이설, 구획 및 동선을 새로 짜는 등 도출된 개선 아이디어는 현장에 바로 반영됐다.

“대부분의 카이젠은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대개 1~2달씩 걸리는 게 예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의 카이젠은 다릅니다.” 유덕상 대표는 이렇게 말하며, 직접 장비 이설 작업에 힘을 보태는 등 열의를 드러냈다.

세아제강도 함께, 계열사 아우르는 카이젠

이번 카이젠의 또 다른 특징은 세아제강이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다. 세아제강 권병기 대표는 ‘좀 더 진화된 카이젠 기법을 배워서 세아제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참여 동기를 밝혔다. 또한, 세아제강의 시각에서 보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현장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권병기 대표와 세아제강 이희대 혁신팀장은 이번 표준작업 카이젠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했다.

“세아 ESAB은 개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초빙된 신기쥬츠컨설팅의 타케시 소우다(Takeshi Souda)는 ‘앞으로 카이젠 활동을 통해 많은 부분이 좋아질 회사’라고 평했다. 한편, 세아 ESAB은 향후 6개월 단위로 카이젠 활동에 대한 현장 피드백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남우 팀장은 ‘1년 후, 세아 ESAB은 오늘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비장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 씁쓸한 노력으로, 더 강하고 효율적인 기업을 향해 세아 ESAB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의지로 맞서다

56년 세아의 성장을 이끈 혁신

국내 제1호 강관 수출로 대한민국 강관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세아. 56년 세아의 역사 면면에는 시대의 변화에 앞서 혁신을 거듭하며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도전 정신이 스며 있다. 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최선의 성과를 창조해 온 세아의 혁신을 되짚어본다.

부산철관공업의 일등주의

부산철관공업(현 세아제강)은 1960년대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창업 10년 만에 자산규모 320배, 자본금 74배가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쌓았다. 이는 해암의 창업정신을 기반으로 철저히 추구한 '일등주의 정신'이 일구어 낸 값진 산물이다. 턱 없이 부족한 물자와 외화 배정의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후발주자라는 불리함까지 극복해야 했던 부산철관공업이 선택한 전략은 '일등주의'. 내수에서든 수출에서든 단연 일등이 되는 것으로, 품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자기 혁신의 정신을 기초로 했다. 이러한 일등주의 정신은 1967년 한국 최초로 1만 달러 규모 강관 수출의 요체로 작용했으며 1972년에 이르러 485만 달러의 실적을 올려 우리나라의 강관 수출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하는 혁신의 동력이었다.

구성원의 혁신 마인드 함양에 주력

1995년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는 수성과 방어적 경영에서 탈피하고, 변화와 혁신을 수반한 공격적 경영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체제로 전환하며 정식 출범했다. 이후 부산파이프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성원들의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아업적상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세아그룹으로 이름을 바꾼 후인 1998년, 세아업적상의 첫 시상식이 열렸다. 세아업적상은 한 해 동안 기술개발·관리·생산·영업부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룹 발전에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2016년 19회를 맞이한 세아업적상은 더욱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위상을 높여 직원들에게 도전과 분발을 촉진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4년에는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한 세아 혁신학교를 개설되었으며 2005년까지 약 5억 원의 교육비를 들여 1,700여 명이 수료했다.

각 계열사의 혁신상 수상 잇달아

혁신을 향한 세아의 꾸준한 노력은 각 계열사들의 혁신 관련 수상 실적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한국번디(현 세아 FS)는 1998년 10대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기술 혁신부문 생산성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듬해인 1999년에는 '신경영혁신대상', '기업혁신상(산업자원부장관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또 2003년 9월에는 국가생산성혁신대회에서 '생산성향상 우수기업' 선정과 함께 영예의 '한국경영생산성 대상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국알로이로드(현 세아 ESAB)는 1994년 9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하는 VE(가치공학) 전국대회에서 중소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VE를 도입한 경영혁신

성공사례들은대기업의전유물처럼여겨졌으나,한국알로이로드가중소기업 최초로 VE대상에 선정되어 관심을 모았다. 한편, 세아특수강도 '제품 차별화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경영 방침 아래 지속적인 생산혁신활동을 추진했다. 제품 품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세아특수강은 2008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제34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기업체 부문 생산혁신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그룹 CTO(최고기술경영자) 신설

세아그룹은 2008년을 기술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그룹의 연구 기술 조직을 대표하는 최고 기술경영자 CTO(Chief Technology Officer)를 신설했다. 그룹 CTO의 출범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속도가 날로 가속되어 기술 혁신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R&D 역량 강화를 통해 세아의 미래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그룹 CTO는 각 사의 R&D 영역을 조율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 공동 수행함으로써 보다 높은 부가가치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로도 세아는 혁신에 박차를 가하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맞서 기업의 활로를 확대해 왔다. 그리고 '세계 철강 시장의 주역'을 향한 세아의 혁신 노력은 오늘도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



1960년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해암



1969년 미국 기업 시찰에 나선 해암



한국알로이드, 1994년 VE 전국대회 중소기업 부문 대상 수상



2004년 세아 혁신학교



세아특수강, 2008년 제3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 표창



2008년 그룹 CTO 현장 시찰



글로벌 경쟁력 키우는 통합 시너지

Inox Tech S.p.A Sales & Purchase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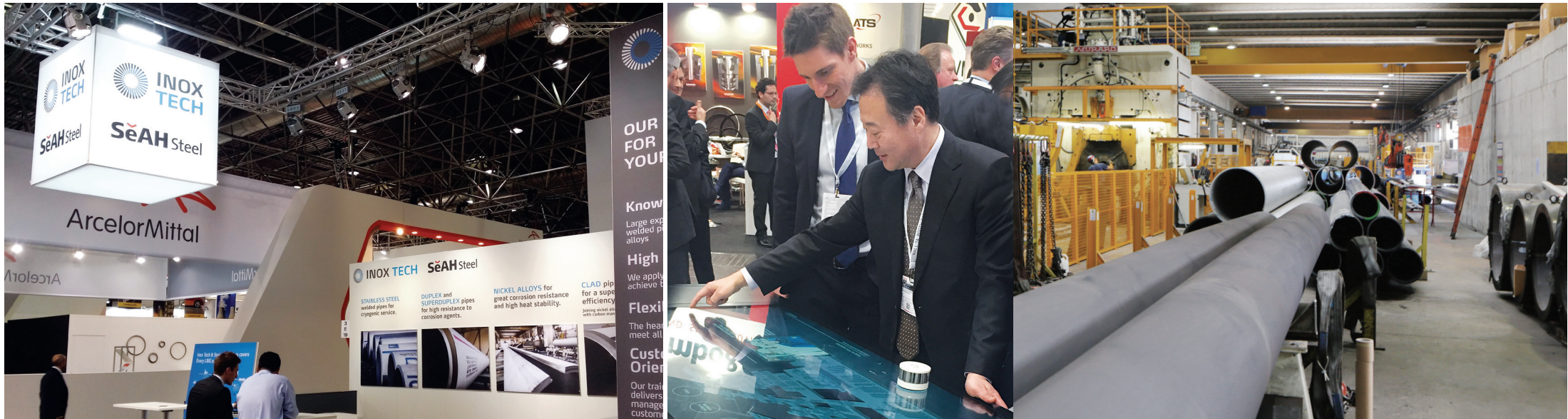
2014년까지만 해도 낯선 이름이었던 Inox Tech(이후 이녹스텍)이 어느덧 세아인들에게 익숙한 고유명사로 자리잡았다. 이녹스텍이 위치한 이탈리아 북부 롬바디아 역시 세아의 글로벌 네트워크 지도 상에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아제강의 이녹스텍 인수 초기, <세아가족>을 통해 첫인사를 건넸던 이녹스텍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글 이녹스텍 Francesco Giammetta / 번역 및 자료 지원 남상욱 차장



이제 우리도 어엿한 세아가족

안녕하세요. 이녹스텍 영업팀의 Francesco Giammetta입니다. 세아제강과 이녹스텍이 한 식구가 된 지도 어느덧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이녹스텍은 한국 문화와 이탈리아 문화를 접목시키고, 기존의 작은 조직이 지니고 있던 대응력과 유연성에 재무구조가 든든한 대기업의 장점을 융합시키며 더 강력한 글로벌 선두 강관기업으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이제 어엿한 세아그룹의 일원으로서 <세아가족>을 통해 여러분에게 인사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녹스텍 영업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저희 팀 구성원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영업팀의 팀장으로서 판매 및 구매를 총괄하고 있으며, 17년차의 베테랑 Alessandro Bagatin과 Elena Pattaro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tefano Pigato는 중동 EPC 업체와 인도, 북미 지역을, Monica Ramazzina는 유럽 EPC 업체와 일본 지역을 담당합니다. 북유럽, 남미, 한국,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담당의 Alessandro Piazzi, 남유럽, 중동, 호주 담당의 Marco Martellato도 작년부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Valentina Bertì가 주문 입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물론 원재료 구매까지 척척

이녹스텍 영업팀의 주요 업무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이며, 해당 주문에 대한 원재료의 구매 업무도 직접 수행하여 롤마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주로 유럽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주 공급처는 Outokumpu, Industeel, Acroni입니다. 영업팀의 각 판매 담당 팀원들은 주문 계약 완료 후, 팀장의 관리 하에 직접 공급처와 협상하여 원재료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처는 오일 · 가스 프로젝트의 발주처, EPC 업체들이며 소규모 주문을 주로 하는 상사(Trading House)들

과도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경기 침체의 늪이 깊어지고 있지만, 다행히 이녹스텍은 수출 위주로 판매하고 있어 영업 활동에는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 시장인 오일 · 가스 산업도 부진을 겪고 있지만 본사 그리고 해외 법인 및 지사의 협조를 통해 꾸준히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사와 공동 마케팅으로 경쟁력 높여

이녹스텍 인수 후, 세아제강은 한국과 이탈리아 2곳에 STS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아제강과 이녹스텍은 매일매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견적과 주문 활동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개별 회사로서 기존에 제공했던 서비스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합동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작년 양 사의 신규 수주 성사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이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이녹스텍에서는 세아제강 본사와 함께 STS 파이프 제품에 대한 공동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과 미팅 시, 팀원들은 이녹스텍이 생산하는 STS 파이프뿐 아니라 본사의 카본(Carbon) 파이프도 함께 홍보하고 있으며, 그 외

세아그룹 제품에 대해서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건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세아제강과 이녹스텍은 각 사의 지리적 장점을 충분히 살리며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업체들과 아시아 지역 상사들의 인근 지역 경쟁자들로 인해 그동안 영업 기회를 잃고 있던 와중에 본사와의 공동 마케팅은 관련 시장점유율을 되찾아 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와 밀접한 협력을 통한 공동 견적 제출은 우리 고객들에게 양 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시회 공동 참가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 이녹스텍은 세아제강과 2016 와이어 앤 튜브전(Wire & Tube Show 2016)에 공동 참가했습니다. 와이어 앤 튜브전은 전 세계 주요 강관 제조사, 판매사, 유통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강관 산업 박람회로,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이녹스텍과 세아제강의 박람회 공동 참가는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시부스를 공동 운영하여 프로모션의 시너지를 높였습니다. 전시부스는 양 사의 전문 역량과 주력 제품 소개, 세아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등이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했으며 상담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 수요가들과의 상담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했습니다. 세아제강도 이번 박람회에 이녹스텍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유럽이 강세인 STS 강관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커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수요가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가시적인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무의 핵심 키워드는 ‘고객 만족’

이녹스텍 영업팀에서는 고객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 의식 강화 차원에서 팀원 중 Alessandro Bagatin, Alessandro Piazzi, Elena Pattaro가 현재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이들 중 두 명은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교육과 고객 관리를 기반으로 이녹스텍 영업팀에서는 고객들이 자신들의 주문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아제강이 이녹스텍을 인수한 이후, 수많은 이녹스텍 임직원들은 세아 주재원들과 어우러져 새로운 경험,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는 본사와 함께 세계 1위의 STS 파이프 공급 업체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포스세아타이 류진희 법인장과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의 진강원 생산팀장은 해외 파견 및 소속팀 업무 일정 등으로 촬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혁신의 비결은 자발적 열정과 사명감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생산팀 & 설비팀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만이 혁신이 아니다. 기존 상황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면 이 또한 혁신이다. 세아특수강 충주공장 이중탁 공장장을
비롯한 5명의 세아인은 올해 초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은상을 수상하며 이 명제를 당당히 증명했다.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 TF팀

지난해 4월, CD BAR(Cold Drawn Bar, 마봉강) 생산설비 2기
가 세아특수강 포항공장에서 충주공장으로 이설되었다. 몸집 큰
설비들을 이설하기 위해 포항공장과 충주공장에 TF팀이 꾸려졌
다. 충주공장에서는 이중탁 공장장을 중심으로 생산팀 봉강파트
의 서성국 파트장과 설비팀의 김성민 과장이 투입됐다. 포항공장
에서도 현재 포스세아타이 법인장으로 파견된 류진희 부장과 진
강원 생산팀장이 합류했다. 현장도, 소속팀도 다른 다섯 명은 ‘내
부 시스템 재점검을 통한 효과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
나가 됐다.

올해 초 이들은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선행적 설
비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큰 상까지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중탁 공장장은 소감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 확
보에 일조한 것이 그 어떤 상보다 큰 기쁨’이라고 전했다. 서성
국 파트장도 ‘뜻밖의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포항공장
과 충주공장이 한 뜻으로 일군 성과라서 더욱 기쁘다’고 전했다.

시장상황을 고려한 발상의 전환

세계적인 철강 경기침체 속에서 세아특수강 유을봉 대표는 ‘지금
까지 해왔던 방법과 생각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차별화’
와 ‘가까이에서부터 이뤄내는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프로
젝트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에 옮겨진 것.

충주2공장을 준공할 당시, 수요 확대에 대비한 생산 설비 신규 투
자가 검토됐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악화되면서 회사의 경영 방향
에 입각하여 기존 설비의 운영 형태를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전
환하게 됐다. 주요 수요 산업인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 둔화와
막강한 경쟁자 출현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 투자 금액
이 큰 신규 설비를 도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한편, 포항공장에서는 다양한 설비에서 여러 규격의 제품이 생산
되는 반면 충주공장은 보유 설비의 한계로 일부 규격의 제품이 생
산되지 않아 공장간 설비 불균형이 존재했다. 더구나 일부 제품의
경우 경인 지역으로 출하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포항에서 생산된 제품이 경인 지역에 도착하려면 5~6시간이 소
요되고 운송비도 대폭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설비 정상화를 위해 시간과의 사투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설비를 이설할 공장동 증설 방안을 협의하는 등 분주한 나날이 이어졌다. 관건은 ‘시간 싸움’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설비 이설을 완료하고 조기 정상 가동을 해야 판매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포항공장 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두었지만 재고 소진 이후 납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매출 감소가 우려되었기에 이설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나갔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실행을 통해 TF 팀원들은 지난해 5월, 예상보다 이틀이나 앞당겨 설비 이설 완료와 정상 가동을 이뤄낼 수 있었다. “설비 구조조정을 위해 현장 직원들과 담당자들이 수개월간 집중하고 고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노력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비결을 묻자 이종탁 공장장은 이렇게 답한다. 사명감이야말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정을 갖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는 것. “기업의 혁신은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하며 진정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조직만이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종탁 공장장은 이렇게 덧붙인다.

포항-충주간 시너지로 기대 이상의 효과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5~6시간 걸리던 해당 제품의 납기를 충주공장 생산을 통해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고, 두 공장에서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설비 불균형이 해소됐다. 생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납기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포항공장은 CD 생산설비 2기와 후처리 설비 등이 충주공장으로 이설되면서 한결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었다.

충주공장에서는 기존 봉강 생산 작업을 담당하던 직원을 신규 이설 설비에 순환 배치하였고, 포항공장은 인원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와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 이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만 연간 7억 원 이상에 달한다. 한편, 경인 지역 내 신규 개발품 의뢰도 증가했다. “신규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느라 숙제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성국 파트장은 즐거운 고충을 토로한다. “충주공장에 설비가 늘어나면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지만 원활한 생산을 위해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납기 대응의 기본은 설비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

전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거쳐

2014년 하반기, 세선(소구경)과 중선(중구경)을 생산할 수 있는 OB와 IB/8 설비를 포항에서 충주공장으로 이설하는 사안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팀원들은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15년 2월과 3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비 이설의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고 설득했다. 노동조합과 전 직원들도 수요 정체와 강력한 경쟁자 출현에 따른 경영 위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신속한 납기 대응 및 제조원가 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한 위기 극복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관리하는 것이니까요.” 김성민 과장도 이렇게 말하며 책임감을 드러낸다. 이설하여 가동한 지 10개월 된 설비가 오늘 들어온 것처럼 깨끗한 비결은 김성민 과장의 이러한 사명감 덕분일 것이다.

가장 큰 성과는 상생 발전의 토대 마련

이종탁 공장장은 ‘상생 발전의 틀을 마련한 것’을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포항공장과 충주공장을 가르지 않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기업의 혁신에는 주연과 조연이 없습니다. ‘내 일만 잘하면 된다’는 개인주의를 타파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협력할 때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과 품질 차별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충주공장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이종탁 공장장과 TF 팀원들. 굳은 결심은 가장 유용한 지식이며, 승리는 의지의 선물이라 했던가? 제아무리 어려운 시장상황이 높은 벽처럼 막아서고 있다 해도 의지로 함께 도전한다면, 우리가 가진 역량을 모아 그 벽을 허문다면 세아의 혁신은 바로 그 앞에 당도해 있을 것이다.



생각은 크게 마음은 신중하게 재무파트 직원들의 만남



회사의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 부서 사람들은 어떤 자기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고, 큰 그림을 그려보는 이들. 세 명의 재무파트 직원들을 만나본다.

세아에 언제 입사하셨나요?

세아홀딩스 재경파트 문창희 사원(이하 문) 재경파트는 자금조달 및 운용, 신용등급 관리 등 전반적인 자금 업무와 더불어 연결결산 및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세아홀딩스 재경파트에 근무한 지는 10개월 됐습니다.

세아베스틸 재무팀 우승호 사원(이하 우) 2014년 7월에 입사했습니다. 세아베스틸에서 수출 매출 및 수입액 규모 등을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자금수지를 작성하는 등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 재무팀 이경로 사원(이하 이) 2014년 10월 입사하여 창원 회계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1월 1일부로 재무팀에 발령 받아 세아타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재무 업무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문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돈을 다루는 부서이다 보니,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부 금융기관과 긴밀히 연락하고 조율하는 일,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많아서 늘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관련 이슈도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매년 개정되는 세법이나 회계기준 지식도 업데이트 해야 하죠.

우 재무 업무 담당자들은 변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하루 일과 중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기도 하니까요. 시장의 변동 추이를 항상 예의 주시하고 그에 따라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회계 쪽에서 숫자 제일 끝자리 1원이 틀려서도 안 되는 것

을 강조한다면, 재무는 다루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인지 좀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회사 밖의 자금도 다루는 터라 더 꼼꼼하고 철저한 자세가 요구되죠.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듯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세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은?

문 업무에 서툰던 때였어요. 현황 및 주요 이슈를 보고하는 서류에 숫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죠. 보고를 받은 부장님께서 제 실수를 찾아서 알려주셨을 때는 정말 아차 싶었어요. 밑에서 올라온 수많은 보고서 가운데서 실수를 발견하는 분도 있는데 정작 보고서를 작성한 저는 농친 거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업무에 숙달된 이후, 처음으로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을 받았을 때는 ‘한 사람의 세아인으로서 적응을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우 주변의 금속공학과 전공자들에게 익숙한 철강 용어들이 경제학을 전공한 제게는 너무 낯설고 생소했어요. 물품을 구입할 때도 제품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죠.

이 재무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특성상 타 부서와 업무를 진행할 때가 많잖아요. 해당 부서 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어느 때부터인지 이런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기더군요. ‘고맙다’며 간식 기프트콘을 선물해 주신 분도 있고, 다른 분들께 제 얘기를 좋게 전해주셔서 처음 뵈는 분이 ‘네가 이경로구나’ 하며 알아봐 주실 땐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만의 업무 노하우는?

문 재무팀은 다른 모든 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업무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고 잘 어우러지는 활발한 성격이 제 노하우라면 노하우입니다.

우 업무에 있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큰 그림 없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자’입니다. 큰 그림이 그려져야 디테일도 완성되니까요. 너무 작은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큰일을 그르치거나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먼저 그린 후, 그 안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편이죠.

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제가 이 업무를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 내용이나 최근 금융 이슈에 관련 이론을 접목시키고, 직접 그래프를 그려보며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죠. 재무뿐만 아니라 회계, 무역 등 관련 업무에 대해 누구보다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게 제 가장 큰 경쟁력이 된다고 봅니다.



세아창원특수강 재무팀
이경로 사원

재무 업무에 있어서 혁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혁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로운 방향으로 바로 잡고, 헛되이 나가는 비용이 없는지 잘 살피는 것 또한 혁신이라고 봅니다.

우 올바른 지출을 하고, 들어오는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재무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재무팀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령,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투자 건이 발생할 경우, 재무팀에서는 묶여있는 자산을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해야 할지 자금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여러 경우의 수를 분석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재무 업무의 혁신이죠.

이 입장을 바꿔보는 것도 혁신입니다. 누군가 요청을 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다면 좀 더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죠. 상대의 시각에서 먼저 배려하는 것, 업무뿐 아니라 인생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어디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서의 각오나 마음가짐은 어떠신가요?

우 ‘회사가 좋을 때는 재무팀이나 자금팀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재무팀에서 없는 돈을 만들어내야 한다.’ 저희 팀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아인으로서는 그리고 재무 담당자로서 위기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도 금융 비용 절감과 금융 수익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이 저성장 상황에서 재무 업무가 특히나 중요해졌습니다. 자금을 보다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할 상황에 놓인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난 부분이 생기면 신속하게 바로잡고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수시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세아홀딩스 재경파트
문창희 사원



세아베스틸 재무팀
우승호 사원

스스로를 혁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문 매주 2회, 조금 일찍 출근하여 팀원들과 함께 재경 관련 영문 원서를 읽고 있습니다. 스피킹 훈련도 되고 전공 관련 지식도 쌓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아직은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세아에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지닌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주사 담당자로서 다른 계열사분들이 문의해 올 때 재무적인 답을 바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 세아의 일원으로서 회사가 발전해야 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재무에 필요한 세무, 회계, 무역 쪽 지식을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를 잘 마스터하면 10년 차, 20년 차가 됐을 때는 각기 다른 분야를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훗날을 위해 각 분야를 배우는 단계죠.

이 입사 후, 자꾸만 배가 나오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세아타워에 근무하게 되면서 1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운동

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는 재무팀에 빨리 적응하려고요. 하루라도 빨리 큰 그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좀 더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아인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문 많은 분들이 ‘세아가 힘들면 국내에 힘들지 않은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아는 항상 정도를 지키며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는 뜻이겠지요. 앞으로도 세아의 문화와 원칙을 따르며 100년 후에도 굳건한 글로벌 철강회사로 도약했으면 합니다.

우 세아는 문화 자체가 매우 가족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열사간에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자주 모임을 갖고 많은 정보도 공유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이 세아인이라 하면 지금 이 사보를 보시는 가족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힘들고 어수선한 시기지만 세아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믿어주시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희망과 용기는 휠체어를 타고 홀트와 함께한 나눔세아 캠페인

지난 56년 동안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시민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사회공헌에 참여해 온 세아. 지난 2월에는 전 그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8살 준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세아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준오를 만나러 홀트일산복지타운을 찾았다.

많은 눈망울이 사랑스러운 아이, 준오

고사리손에 개나리꽃 가지가 들려있다. 아이는 ‘후~’ 하고 노란 꽃잎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는다. 뺨얀 얼굴에 또랑또랑한 눈매를 지닌 아이의 이름은 준오. 올해 8살이다. 이 또래의 아이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 마음껏 뛰어 노는 것이 준오에게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준오가 앓고 있는 병은 이름도 생소한 골형성부전증. 양팔이 모두 안쪽으로 휘었을 뿐 아니라, 선천적인 골다골증도 앓고 있어 특별한 원인 없이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고 한다. 뼈가 약하다 보니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 발달도 더디다. “항상 눈 안에 있어야 하는 아이예요. 보통 아이들에게는 뛰놀다 넘어지고 다치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준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홀트에서 6년째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지경희 생활재활교사가 이렇게 말한다.

준오 몸에 너무 작고 불편했던 휠체어

미끄럼틀 대에 올라선 준오가 쉽사리 내려오지 못한다.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의 무른 뼈가 사소한 부딪힘에도 위태롭다는 사실을 아이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준오는 뒤꿈치에 뼈가 부족하여 보호 기구 착용 없이는 걸을 수 없다. 외부 활동 시에는 휠체어가 필수. 복지타운 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동할 때마다 준오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한다. 하지만 전에 준오가 사용하던 휠체어는 너무 오래되고 낡은 것이었다. 시설의 다른 아이들에게 물려받은 휠체어는 준오의 몸에 너무 꽉 끼고 바퀴의 균형도 맞지 않았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일도 있었다고. 더구나 예전 휠체어는 너무 무겁고 접히지도 않아서 학교에서 야외 학습이라도 가는 날이면 준오는 유모차를 타거나 아예 야외 활동에서 제외되곤 했다.

새 휠체어 타고 놀러 가고 싶어요

얼마 전, 준오는 새 휠체어를 선물 받았다. 준오의 몸에 딱 맞는 아담한 사이즈의 휠체어다. 준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세아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모은 것. 예전 휠체어에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앉기를 꺼려하던 아이가 새 휠체어를 받은 후로는 자꾸만 ‘밖에 나가자’고 조른다. 자신의 휠체어를 가리키며 들뜬 목소리로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외치는 준오. 지적장애 2급인 준오는 짧은 단어나 간단한 문장 밖에 말할 수 없지만 새 휠체어가 몹시



맘에 드는 모양이다. “바퀴가 잘 굴러가니까 아이도 달라진 느낌을 알죠. 준오를 외부에 데리고 나갈 때 편해져서 선생님들도 좋아해요.” 지경희 교사가 말한다. 준오뿐만 아니라 홀트 장애 아이들은 얼마 안 되는 국고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장애 3급의 경우 매달 지원받는 장애연금은 한 달에 고작 2만 원. ‘과일조차 맘 놓고 사 먹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휠체어 구입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그래서 세아인들이 준오에게 내민 손길은 봄 햇살만큼이나 고맙고 따스한 것이었다.



준오를 향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지난 2월 1일, 세아의 그룹 인트라넷에 준오의 사연이 소개됐다. 홀트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차용하여 나눔세아 캠페인을 위한 별도의 결제창도 마련됐다. 캠페인이 진행된 한 달간 모금된 금액은 총 629만 5천 원. 361명의 세아인이 준오의 사연을 보고 힘을 보내주었다. 세아 ESAB 전 직원 226명이 만 원씩 모아 보내준 226만 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함께 전달됐다. 관심과 사랑으로 모인 금액은 준오는 물론 휠체어가 시급한 또 다른 아동을 위해 쓰여졌다.

‘준오가 해맑은 웃음을 간직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준오의 밝은 모습에서 희망의 싹이 돋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준오야,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면 새 휠체어 타고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햇빛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렴’. 세아 인트라넷 게시판과 홀트 결제창 메시지란에는 준오를 향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후원 신청도 참 소중하지만, 세아인들이 준오에게 보내준 한 줄 한 줄의 메시지도 참 몽클하고 고마웠어요.” 홀트아동복지회의 이윤주 선임은 말한다. 특히 지난해 홀트 일산복지타운을 찾았던 한 세아인이 반가운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사연을 접하며 준오가 낯익다 싶었는데 신입사원 봉사활동 차 방문했을 때 본 기억이 있어 왠지 모르게 반갑고 더 마음이 갔습니다. 준오를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큰 기적으로 이어질길 바라는 모두의 마음은 휠체어를 타고 준오에게 전해졌다.

자발적인 참여로 기부금 모여

그간 세아는 여러 크고 작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지만, 그룹 차원의 통합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 계열사별로 시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모든 세아인이 함께함으로써 따뜻한 나눔의 경험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무엇보다 임직원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활동이라 더욱 뜻깊다. 세아홀딩스는 후원과 공유라는 의미를 담아 이번 캠페인 활동을 ‘나눔세아’라고 이름지었다. 모금액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 활동의 모든 과정을 임직원과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향후 세아는 나눔세아 캠페인을 비롯하여 그룹 전체의



임직원이 함께하는 나눔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나눔세아 캠페인은 세아홀딩스 주축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후원 대상의 지역 선정부터 주최사까지 변화를 주어, 전 그룹사에서 고른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도 갖고 있다. 나눔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세아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계절은 거꾸 돌아오고, 더디지만 꾸준히 준오도 자라날 것이다. 혼자 힘으로 걷기 힘든 준오에게는 늘 누군가가 두 발이 되어주어야 한다. 잘 굴러가는 바퀴가 돼주어야 한다. 나눔 활동이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꽃잎에 입김을 불어넣듯, 더 멀리까지 노란색 봄빛이 번져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숨결을 보내는 일, 그리하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물들이는 일. 모든 세아인이 함께할 나눔의 모습이다.

<후원 문의> 홀트일산복지타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1-24
T. 1899-0923 www.holt.or.kr

나뭇결 따라 추억을 차곡차곡 원목 가구 만들기 체험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그 과정뿐 아니라 시도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그것이 가족과 함께 만드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봄의 온기가 가득한 일요일, 세아베스틸 경영기획파트의 유동훈 대리 가족이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들기 위해 일산의 ‘헬펠레 목공방’을 찾았다.

세아베스틸 경영기획파트 유동훈 대리 가족



두근두근 우리 가족 첫 작품 도전

나무 향기 가득한 공방 안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먼저 뛰어든다. 오늘 체험에 나선 유동훈 대리의 두 아들, 준우와 시우가 그 주인공이다. 진지한 표정의 7살 준우도, 장난기 가득한 표정의 4살 시우도 오늘 체험이 사뭇 기대되는 모양이다. 낯선 공방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두 아이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하다. “주말이면 되도록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려고 해요. 여행도 다니고, 박물관이나 미술 전시회도 자주 가는 편이죠.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언제 어디를 함께 갔고,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하더라고요. 오늘 체험도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유동훈 대리.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 근처의 공원을 즐겨 찾는가 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알아본다고. 그런 유동훈 대리에게도 가구 만들기는 낯선 경험이다. 잘 만들 수 있을지 살짝 걱정도 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즐겁게 도전해 보기로 한다.

대화 속에서 더 크게 자라는 아이들

아내 김영순 씨의 증언에 따르면 유동훈 대리는 결코 늦잠을 자는 법이 없다. 주말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해준다. 신혼 때부터 결혼 8년 차인 지금까지 한결같이 성실한 남편이자,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자상한 아빠다.

“대화를 많이 해요. 평일에도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가족만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 무엇을 하고 놀았고 기분은 어땠는지 등 사소한 것까지 모두 얘기하고 서로의 얘기를 잘 들어주죠.”

그래서일까? 첫째 준우는 또래보다 말을 빨리 배웠다. 나이보다 의젓하고 속 깊은 얘기를 해서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할 때도 있고, 기억력도 좋은 편이라 배우는 속도도 빠르다. ‘놀 때가 제일 좋다’는 시우는 영락없는 귀염둥이 막내. 그런 시우도 형이 한글 공부를 할 때면 방해하지 않는다. 어께 너머로 형의 공부를 놀이처럼 따라 배운 덕분인지, 보통의 4살 아이들보다 정확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안다.

“둘 다 한창 극성스러운 나이잖아요. 하지만 세 살 터울의 사내아이가 둘을 키우는 것 치고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따라줄뿐더러 둘이 싸우지도 않고, 특히 준우가 시우를 잘 돌봐주거든요.”

엄마는 보석 같은 두 아이가 그저 기특하고 자랑스럽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선생님은 부모요, 가장 좋은 교재는 대화라고 했던가?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집에서 아이들은 더 빨리 배우고, 착하게 자란다.

정성을 다해 집중 또 집중

오늘 유동훈 대리 가족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인 스톨을 만들기로 했다. 공방에서 제대로 긴 시간 교육을 받고 설계부터 해나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에게 그것은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공방 측에서 최소한의



설계와 나무 손질을 미리 해주고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마무리해 보기로 했다. 준우와 시우는 다 만든 스톨에 색칠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한다. 손질을 거치기 이전의 나무판은 모서리 등에 손을 뻗 위험이 있고 특히 아이들의 고사리 손은 어른보다 여물지 못해서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가장 간단한 아이템이지만, 처음 해보는 원목 스톨 만들기는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무판을 스톨 모양에 맞춰 자르고 다듬는 일. 유동훈 대리는 재단기를 이용해 선생님이 미리 그려둔 도안대로 나무판을 잘라냈다. 두꺼운 나무판도 거침 없이 잘라내는 재단기는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유동훈 대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 또 집중한다. 잘라낸 나무판은 전동 사포로 곱게 다듬어낸다. 사포질로 매끈해진 나무 조각들은 다시 한 번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는 몰딩 작업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스톨이 될 자격을 갖는다.

아빠와 두 아들의 멋진 합작품

본격적인 가구 조립의 시간. 나무판을 스톨 모양대로 짜 맞추며 전동드릴로 나사못을 박는 작업이 이어졌다. 단 1cm만 빗나가도 의자가 기울거나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로 간격을 측정하여 정확하게 맞추고, 나사못을 박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는 요령이 필요하다. 아빠를 응원하며 두 아이가 고사리손으로 스톨을 꼭 잡아준다. 삼 부자의 호흡이 척척 잘 맞아서인지 못을 빼서 다시 박는 일 없이 한 번에 무사 통과. 나무의 다리 부분과 상판이 제대로 연결되며 스톨이 점차 제 모습을 갖춰나갔다. 흠이 패인 나사못 자리에는 접착제로 나무못을 끼워 넣어 깔끔한 마무리도 잊지 않는다.

“저도 해 볼래요.”

지켜만 보고 있던 준우가 아빠를 도와 나무못을 망치로 두드린다. 툭툭툭. 아빠와 아들이 함께 만드는 망치소리 장단이 공방을 가득 채운다.

이번에는 시우도 나설 차례. 페인트 붓을 손에 든 준우와 시우는 색칠공부 하듯 신나게 색칠해 나간다. 다리 부분에는 하얀색 페인트를, 상판에는 봄빛을 닮은 초록색을 빠진 곳 없이 꼼꼼히 채워가는 준우와 시우. 어설픈 붓질이지만 정성을 들이는 표정만 큼은 프로 못지 않은 진지함이 묻어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음처럼

그렇게 가구를 만들기 시작한 지 어언 두 시간. 드디어 스톨이 완성됐다. 어깨가 빠근하고 손이 욕심거릴 만도 한데, 유동훈 대리의 표정은 밝아만 보인다.

“자르고 다듬고 조립하는 과정 그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네요. 정말 정성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늘 하는 경험이 아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온 가족이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서툰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긴 해도 우리 가족의 땀방울이 묻어 있기에 만족합니다.”

노력한 딱 그만큼의 결과물을 마주한 순간의 기쁨은 물론이요, 가족이 힘을 모아 만든 물건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유동훈 대리.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를 만들어낸 성취감은 이미 만들어진 가구를 돈 주고 사는 것에 비할 게 아닐 것이다.

부부의 가장 큰 소원은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다. 그저 아이들이 지금처럼 잘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지금은 아직 많이 어리지만 준우와 시우가 자기 주관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부모로서 곁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려고 한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만든 가구를 보니 문득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생각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한 그루의 나무. 이 세상 부모의 마음이란 다 그런 것이 아닐까?

땀 흘린 노동과 나무의 생생한 향기가 함께했던 가족의 첫 경험. 이제 준우와 시우는 완성된 스톨을 갖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무가 켜켜이 나이트를 쌓아가듯, 오늘 만든 스톨이 세월 따라 자연스레 아이들과 부모들의 손때를 묻혀가며 이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촬영 협조> 헬펠레 목공방 일산풍동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1-24
T. 031-919-7450 www.diyhafele.co.kr





노력과 관심으로 맛을 낸 봉골레 스파게티

요리도 어느 일과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 재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쉽게 요리하는 요령도 생긴다. 실력이 늘수록 요리하는 시간도 즐거워진다. 어쩌면 요리를 잘하는 비법은 절대미각처럼 타고난 재능이나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꾸준함’일지도 모른다.

세아제강 인사팀 김부영 사원

결혼 전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명 맛집 탐방 등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즐기는 수준이었을 뿐,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었죠. 결혼 후 당장 제 손으로 저녁 밥상을 차려야 하는 일이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할 줄 아는 요리가 거의 없어서 매일 저녁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밥 짓는 법부터 하나하나 여쭙 봐야 했죠.

그래도 ‘막상 닥치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진리인가 봅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한식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어떤 재료, 어떤 양념을 써서 이런 맛이 나는 걸까?’라고 생각하며 조리 과정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요. 처음엔 책임감만으로 저녁 밥상을 차리던 제가 어느새 요리를 즐기게 되었답니다. 어느 정도 한식 요리가 손에 익자, 색다른 요리에도 도전해 보고 싶어지더군요. 남편에게 늘 같은 요리만 차려주던 터라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모처럼 특별한 요리를 해보겠다는 제 도전의 결과는 참담했어요. 인터넷 블로그의 레시피를 흉내 낸 요리는 너무 맛이 없어서 몽땅 버려야 했죠. 이후에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꾸준한 시도 끝에 몇 가지 요리에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에 제가 도전하는 봉골레 스파게티도 역시 그렇게 익힌 요리 중 하나. 봉골레 스파게티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남편에게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집에서도 근사한 레스토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메뉴랍니다. 조개의 짭조름하면서도 시원한 맛에 건고추의 매콤함까지 더해져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음식이죠. 봉골레 스파게티는 마늘과 화이트 와인을 넣는 것이 맛내기 포인트. 비린 맛을 없앨 뿐 아니라, 와인의 향이 조갯살에 스며들어 맛과 향이 한결 좋아져요. 남편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라며 만족스러워하더군요. 절대 못할 것 같은 일도 계속 하다 보면 늘기 마련인가 봐요. 요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제가 자연스럽게 여러 요리에 도전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저녁엔 세아 가족 여러분도 색다른 요리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김부영 사원의 봉골레 스파게티



재료(2인분)

스파게티 면 300g, 바지락 또는 모시조개 400g, 마늘 8쪽, 건고추 4개, 올리브 오일 5큰술, 화이트 와인 1/2 컵, 파슬리, 소금, 후추 약간씩

만드는 방법



Step 1

마늘은 도톰하게 저며 썰고, 건고추는 잘게 잘라,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 2큰술을 두르고 살짝 볶아줍니다.



Step 2

바지락을 넣어 함께 볶다가 화이트 와인 1/2컵을 붓고 뚜껑을 덮어 익혀줍니다.



Step 3

스파게티 면은 올리브 오일 1큰술과 소금을 약간 넣고 약 8분간 삶은 후, 건져내어 물기를 뺍니다.



Step 4

보글보글 끓는 바지락 육수와 와인 국물에 올리브 오일 3큰술을 더하고, 삶아 놓은 스파게티 면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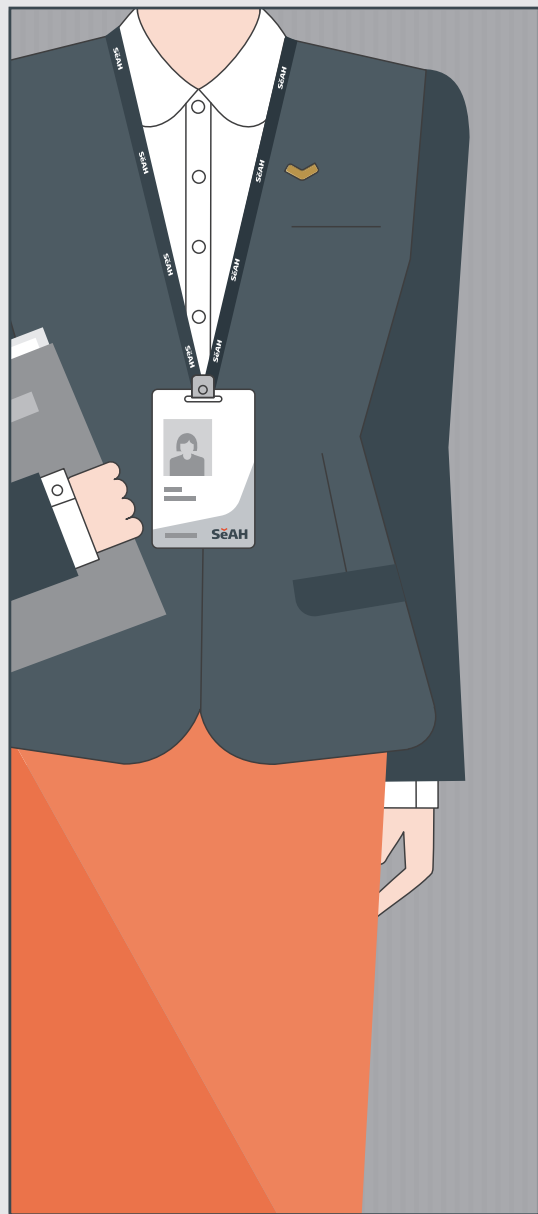
Step 5

파슬리 가루와 후추를 뿌려 고루 섞은 후 마무리합니다.

TIP

바지락은 해감이 되어 있는 마트 상품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따로 해감을 해야 할 경우 바닷물 농도의 소금물에 하루밤 담가주세요. 화이트 와인은 드라이한 것을 사용해야 재료의 맛을 살리는 데 좋습니다.

세련된 직장인으로서의 변신 봄날 비즈니스 룩의 정석



옷차림은 그 사람의 브랜드

“좋은 인상을 주는 패션은 당신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준다.” 일본의 유명 경영 컨설턴트 후쿠시마 테츠시(Fukushima Tetsushi)는 이렇게 말하며 옷차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의 ‘금의환향(錦衣還郷)’이라는 사자성어는 의복이 그 사람의 출세나 성공을 표현하는 수단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을 것으로 미루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취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옷차림은 상대방에 대해 예를 표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의관정제(衣冠整齊)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가다듬고, 상대방에 대한 예를 표해 왔지요.

파스텔 컬러로 산뜻하고 부드럽게

남녀 모두 직장인으로서 일할 때 가장 무난한 옷차림은 깔끔한 정장 차림입니다. 남성 정장의 경우는 실루엣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옷의 색상이나 넥타이, 셔츠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회색이나 푸른색 계통은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확신을 줄 수 있고, 검정 계통은 모든 색상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색채 전문 연구 기업 팬톤은 올해의 색상으로 파스텔톤의 핑크와 블루인 로즈쿼츠와 세레니티를 지목했습니다. 불황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부드러운 색상이 선호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소 입을 셔츠나 블라우스, 넥타이, 화장 등에 포인트 색상으로 로즈쿼츠와 세레니티 컬러를 활용한다면 봄날의 산뜻한 분위기와 함께 부드러운 인상을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꽃샘추위도 꺾이고, 완연한 봄이 됐지만 계절이 바뀌니 출근할 때 옷차림이 고민입니다.

격식을 차리면서도 스타일까지 살릴 수 있는 옷차림은 어디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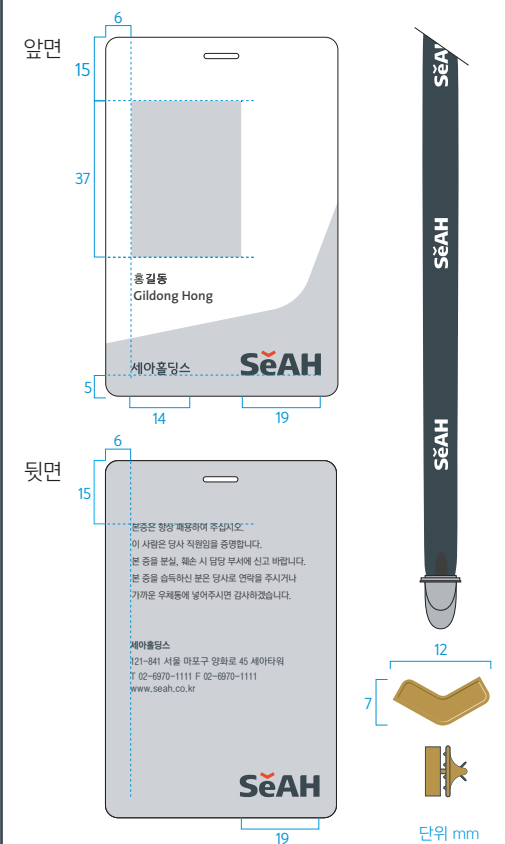
<세아가족>이 일의 능률과 함께 회사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는 봄날 스타일링을 제안해 드립니다.

신뢰감 높여주는 올바른 직원증 착용

작은 디테일에서 전해지는 센스가 진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므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아이템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직원증의 올바른 착용은 비즈니스 룩의 완성에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 직원증은 흔히 보안과 통제를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직원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건물 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증이라는 작은 카드에 담긴 소속감과 자부심입니다. 세아의 직원증 뒷면에는 ‘이 사람은 당사 직원임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항상 직원증을 패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원증은 단순히 출입을 가능케 하는 도어키가 아니라 세아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직원증은 방문객이 우리를 쉽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지폐 등과 함께 지갑에 넣기보다는 직원증에 표기된 이름과 소속 등이 잘 보이도록 목에 걸어 착용합니다. 세아인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아이템, 라이징 커브 배지는 정장 재킷의 왼쪽 가슴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이징 커브는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세아의 위상과 구성원의 기상을 상징하는 심벌마크입니다. 따라서 모양이 뺄뿔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커브의 움푹한 부분이 가운데에 오도록 하여 착용합니다.

초경쟁 시대, 기업의 경쟁력은 고객이 인식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에 의해 판단되기도 합니다. 올 봄 격식을 갖춘 올바른 옷차림으로 진취적이고 세련된, 신뢰할 수 있는 세아인의 모습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아 직원증 · 배지 매뉴얼



사이즈 : 55mm x 85mm
재질 : 플라스틱
제작 : 옅은 분홍색 인쇄
색상 : SeAH Gray / Pantone Cool Gray 11c
 SeAH Orange / Pantone 1665c
 SeAH Light Gray / Pantone 429c
서체 : 이름 윤고딕540 14pt / The Sans Semi Bold 9pt



세아제강

군산공장, 군산종합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지난 3월, 세아제강 군산강관공장 임직원들이 군산종합노인복지관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군산종합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취미, 교육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봉사팀은 이날 청소와 식사 대접을 통해 어르신들을 섬기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한 봉사 참가자는 '작은 손길이지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 이었다고 전했다. 봉사팀은 격월로 어르신들을 찾아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봉사 활동의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2016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

세아특수강은 지난 3월 25일 포항시가 주관하는 '2016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는 2013년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황폐해진 학산공원 일대를 복구하고 나무 심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포항시가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임직원들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포항시는 세아특수강의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세아베스틸

제61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 3월 18일, 세아베스틸의 제61기(2015년도) 주주총회가 합정동 본사에서 개최됐다. 약 50명의 사내외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영업보고와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재무제표 승인 등을 포함한 4가지 안건들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 실시한 이사회에서 이태성 전무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윤기수, 이태성 각자 대표이사체제로 운영되며, 이승휘 부회장은 상임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세아 ESAB

경남직업전문학교 용접 재료 기부

세아 ESAB은 3월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직업전문학교(재단법인 이찬)의 특수용접 및 플랜트 용접 직업훈련 과정에 용접 재료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FCW와 솔리드 와이어 각 1파레트씩으로 미래의 용접사 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남직업전문학교의 용접훈련 과정은 경남에서 가장 많은 용접사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기부를 통해 사회적 기여는 물론 세아 ESAB의 용접 재료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아창원특수강

산재예방 공생협력 프로그램 발대식 개최

3월 30일, 세아창원특수강은 '모기업-협력업체' 산재예방 공생협력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협력업체의 작업 위험도를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평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지용 대표를 비롯해 21개사 협력업체 대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최병남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협력회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세아메탈

창립 22주년 기념식 행사

3월 21일, 세아메탈은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창원 본사 강당에서 박도훈 상무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식 행사를 거행했다. 박의숙 회장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치열한 경쟁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세아메탈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며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년 장기근속자와 모범사원 시상도 함께 시행됐다.

세아제강

입사
이시은 부산판재영업팀
장 훈 군산판재공장 생산팀
김윤성 군산판재공장 생산팀
김주희 순천공장 생산팀
박이레 순천공장 품질경영팀

결혼
황정연 군산판재공장 생산팀
박진우 본사 생산계획팀

출산
윤광식 군산판재공장 생산팀
도영원 본사 서울영업2팀
최성욱 포항공장 설비기술팀
강상일 본사 회계팀
이민걸 순천공장 생산팀
신영남 순천공장 품질경영팀
이 찬 포항공장 설비기술팀
김성웅 포항공장 품질경영팀
강희준 포항공장 설비기술팀
최성욱 포항공장 설비기술팀
송석현 본사 아연도강판영업팀

조의
홍상기 군산판재공장 생산팀(장인)
이금송 군산강관공장 품질경영팀(부친)
이상일 포항문덕공장(장모)
안경수 포항공장 생산3팀(모친)

세아베스틸

결혼
조기연 공정연구센터 품질보증팀
장영배 품질보증팀
이승민 제품연구센터
정재영 제강팀

조의
전기년 소형압연팀(부친)
김학권 제강팀(부친)
남태희 제강팀(장인)

양재용 자재관리팀(장인)
이영복 자재관리팀(장모)
편승철 제강팀(장모)

세아창원특수강

입사
박다희 회계팀
정세지 공정연구1그룹
강민준 영업3팀

결혼
홍성표 압연팀 선재파트
우지민 안전환경팀
배재호 가공팀 가공파트
부희경 인재개발팀
박명철 가공팀 가공파트
장세한 구매팀

출산
석지훈 강관단조팀 강관파트
임종현 제강팀 2제강파트
홍민석 압연팀 선재파트
업재욱 가공팀 가공파트
정은우 제강팀 3제강파트
박성재 강관단조팀 강관파트

조의
최용훈 품질보증팀 QA파트(모친)
배경호 가공팀 산세파트(모친)
박찬호 제강팀 2제강파트(모친)
박재성 강관단조팀 강관파트(모친)

김동욱 구매팀(모친)
장세훈 압연팀 선재파트(모친)
유형일 압연팀 압연파트(장인)
김대희 품질보증팀 QA파트(장인)
정연욱 강관단조팀 강관파트(부친)
최일봉 압연팀 선재파트(부친)

세아특수강

입사
이민지 부산 부산영업소
최광준 서울 선재영업팀
김윤혜 서울 봉강영업팀
어필선 서울 봉강영업팀
여환진 포항 물류자재팀

결혼
윤영호 충주 생산팀
임종혁 포항 품질보증실

출산
손기홍 충주 물류자재팀
송용석 서울 수주관리팀
이현수 포항 설비팀
최성석 포항 생산팀
김진호 충주 생산팀

조의
이상도 포항 생산팀(장모)

세아 FS

입사
김선아 서울 경영관리팀
김명기 평택 자동차개발부문

출산
이영무 평택 생산팀
김남규 평택 표면처리개발팀
이동현 평택 생산팀
임양규 광주 생산팀

조의
최유경 서울 마케팅팀(조모)
배동호 평택 생산팀(부친)
이호영 김해 가전영업팀(조부)

세아 ESAB

입사
최형주 일본사무소

출산
김지건 설비개선팀
전희연 인사총무팀
이규혁 솔루션영업 1팀

조의
차경호 제품개발팀(조모)
박해순 구매팀(모친)
김문자 생산팀(시부)

세아메탈

조의
이준기 원주 기술개발팀(부친)

세아 M&S

출산
문세훈 설비관리팀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경수미 경영지원팀
손기영 개발1팀

세아 E&T

출산
김동섭 기술영업1팀
전현명 토목건축팀

세아 L&S

입사
김효선 재경기획팀
장주형 판재영업1팀

출산
오현근 안산영업소

Post Box 독자참여

Reader's Letters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호 <세아가족>에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기획된 <함께 가는 길> 칼럼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세아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세아 구성원의 가족으로서 든든하고安心이 됩니다. 무엇보다 세아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상생과 동행의 가치가 느껴져서 저절로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세아의 모든 계열사를 포함해 세아와 함께하는 고객, 협력사 모두 행복하고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하

'Back to the Basic'을 테마로 한 1-2월 사보 잘 받아 보았습니다. 3월이 되어 2016년 세웠던 계획과 목표를 잊고 있었는데 <세아가족>을 읽은 후, 다시 한번 각오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김미나

더 깔끔해진 2016년 버전의 <세아가족>이 마음에 들어요. 좋은 정보와 세아의 소식들을 잘 전해 주셔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성훈

2016년의 첫 사보, 잘 봤습니다. 신입 임원들의 인터뷰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더군요. 임원이 되니까 지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가며 실력을 쌓아온 두 분의 저력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장광덕 이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말씀에 자극 받아 저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안서준

매호 <세아가족>을 받을 때마다 세아 히스토리를 가장 유심히 읽어보곤 합니다. 이번 호에서도 세아의 역사를 보며 세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선혜

사보를 읽을 때마다 세아가 참 멋진 기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아창원특수강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항상 자부심과 행복함을 느낍니다. 세아 파이팅!

김복열

<세아가족> 사보기자

고은비 세아제강 인사운영팀(본사)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현구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김재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판재공장)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강관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순천)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본사)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군산)

김승득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이형호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본사)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충주)

김유현 세아 FS 인사팀(서울)

장소라 세아 FS 업무지원팀(평택)

윤서연 세아 FS 업무지원팀(광주)

장영원 세아 ESAB 경영지원실

신상호 세아메탈 경영기획팀(서울)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이상기 세아 E&T 경영지원팀

김재홍 세아 M&S 경영지원팀

김미희 세아 L&S 재경기획팀

Quiz

<세아가족> 3+4호를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퀴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자

김복열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이선혜 전북 군산시 지곡동

김미나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인성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안서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김성하 서울 노원구 덕릉로

Q1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효율 높은 명품 공장을 만들기 위한 공장 혁신의 일환으로, 세아제강 포항공장 소경1공장이 지난해 전 구역 인증을 받은 활동의 이름은?

1. 명소활동
2. 6Sigma
3. TRIZ
4. JIT

Q2 결심을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퇴로를 차단해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는 심리학적 기법은?

1. 백업 플랜
2. 상황통제
3. 역산 계획
4. 가두리 기법

Q3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화려하고 섬세한 이탈리아 오페라 특유의 창법과 장르는?

1. 징슈필(Singspiel)
2. 벨칸토(Bel Canto)
3. 오페라 부파(Opera buffa)
4. 베리스모(Verismo)

💬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 감명 깊게 본 영화나 책 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chris.ahn@seah.co.kr / 02-6970-0093



We are passionate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세아의 열정에 한계란 없습니다.

아시아, 북아메리카,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을 개척하며

앞선 기술과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 받는 철강소재 전문기업, 세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SeAH

세아그룹은 **정직, 열정, 실력**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아홀딩스 • 세아제강 • 세아베스틸 • 세아창원특수강 • 세아특수강 • 세아FS • 세아ESAB • 세아메탈 • 세아M&S • 세아엔지니어링 • 세아L&S • 세아네트웍스